



당신과 내가 바꾸는 세상

제4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

그녀들, 광장에서 별별 말한다

이 곳에서 처음 꺼내는 이야기

그 곳에 두고 온 나의 욕망

나는 잘못이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

살/고/싶/다/

나는 이렇게 힘이 나기도 했어

분노하는 것도 참 힘들었어

내 몸이 기억해

그 무엇보다 가장 화가났던 것은

나는 가끔 이런 상상에 불타오르고는 하지

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

떨어내지도, 더하지도 않은 그냥 그 이야기

성폭력이란 이름은 때론 무겁기도 해

당신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충고한다

나의 작은 깨달음, 새로운 전율이 오던 때

너의 지지 덕에 기뻐서, 고마웠어

감정이 폭발했던 순간, 감정이 폭발했던 건 왜냐하면

내 몸이, 내 맘이 내 것이 아니었을 때

복수를 상상하는 내 머릿 속,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다

생존자들의 세상을 꿈꾸다

가해자를 용서할 수도, 미워할 수도 없어서 아프기도 해

말해도, 말해도 안 풀리는 이야기, 그래서 또 말하고 싶은 이야기

가해자보다 니가 더 싫어

내가 바꾸고 싶었던 것, 바꾸고 싶게 된 것

안아주고 싶기도, 놓아주고 싶기도 한 나의 상처

나는 그들과 말쑥기를 그만두겠다

나는 이렇게 지지받고 싶었다

무엇이 두려운가? 무엇이 기대되는가?

여자들이 만드는 미래

나는 이런 걸 할 거다. 같이 할 사람?

당신과 내가 바꾸는 세상 제4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| 2006년 8월 12일(토) 늦은 6시 성균관대학교 운동장

주최(사)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(서울시 여성발전기금) | 문의전화 02-338-2890~2 speakout2006@hanmail.net www.sisters.or.kr/speakout